

동아화성, 삼성화학 지분 100% 인수

드럼세탁기용 고무부품 시너지효과 기대 ... 국내외 계열사 4개로 확대

가전 및 산업용 고무부품 생산기업인 동아화성(대표 임경식)이 2004년 수익성 확대를 기반으로 삼성화학 지분을 100% 인수하게 됐다고 3월2일 공시했다.

삼성화학은 가전용 고무부품 주력 생산기업으로 삼성전자 등에 주로 납품해왔고, 자산총액이 84억원이며 부채가 약 5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동아화성은 삼성화학의 생산설비 및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드럼세탁기용 고무부품 사업이 더욱 탄력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2004년 동아화성의 매출액은 566억6488만원으로 2003년 518억4310만원에 비해 9.3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은 22억7974억원으로 76.6% 증가해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는데, 드럼세탁기용 매출 증가가 수익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동아화성은 삼성화학 인수로 국내 명성정밀과 해외 현지법인인 Dong-A India, 동아화성과기무석유한공사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계열사를 확보하게 됐다. <주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5/03/04>